

나도 받아보자 A+

- 시험 정복 전략 -

vol.2

한국항공대학교 교수학습센터

KAU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안녕하세요,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입니다.

CTL에서는 학생 여러분의 학습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러닝팁을 통해 다양한 학습 방법 및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부딪혔던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찾게 되는 러닝팁이 되도록 여러분의 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습니다.

CTL은 러닝팁 외에도 학생 여러분의 학습 역량 향상과 경쟁력 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관심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학습센터 드림

학습지원 프로그램

Speech Clinic

- 영어 발음 및 발화 교정을 위한 외국인 교원 1:1 맞춤 서비스 프로그램

일반/글로벌 멘토링

-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및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튜터링

- 학습공동체를 통한 기초수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생공모전

- 학습법 특강과 연계하여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입생 학습역량 가이드

-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습 전략 제공 프로그램

학습법 특강

- 학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법 관련 특강 프로그램

Learning tip

- 교수학습센터 양질의 학습전략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 자세한 정보 : 02 - 300 - 0494(항공우주센터 3층 312-A호)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http://www.kau.ac.kr/ctl/index.do>)

교수학습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auctl/>)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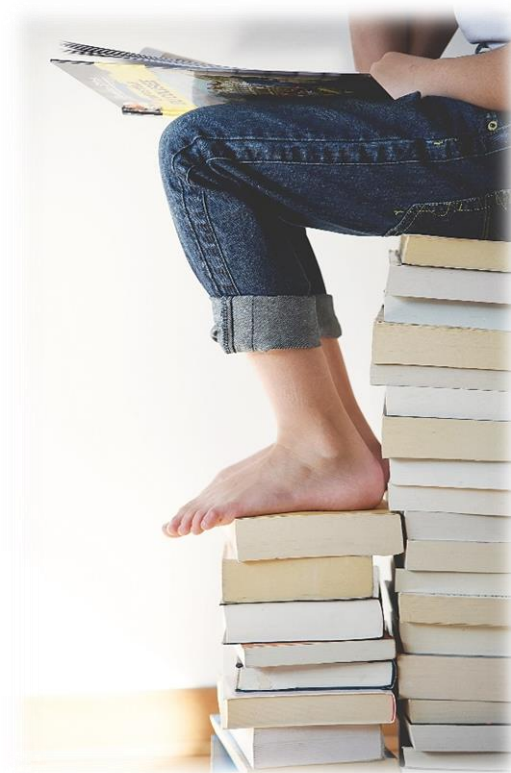
1. 오늘의 러닝팁	4
2. 시험의 시작은 시험준비부터!	5
3. 시험불안, 그게 뭔데?	11
4. 그날, 시험 당일	15
5. 러닝팁을 마치며	17
참고문헌	17

1. 오늘의 러닝팁

여러분께 알려드릴 오늘의 러닝팁은 **성공적인 시험을 위한 학습 전략**입니다.

만족스런 중간고사를 본 친구들이나 기말고사에서만큼은 확실하게 학점을 따야 하는 친구들이나 모두에게 기말고사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만이 아니라 영어 공인 인증 시험에 각종 자격증 시험까지 줄줄이 시험뿐인 걸까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 본 그 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을 이 때 써야 하지 않을까요? 피할 수도 없는데 즐길 수도 없다는 투정이 나온다면, 일단 부딪쳐야 하는 일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대면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러닝팁 2호에서는 **“나도 받아보자 A+: 시험 정복 전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한 시험전략이기보다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막상 실천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러닝팁을 읽으면서 ‘나도 다 아는 건데?’ 라는 말보다는 ‘나도 아는 거니까 이번엔 정말 해보자!’ 라는 말로 시험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 시험의 시작은 시험준비부터!

By failing to prepare, you are preparing to fail.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일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하였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감에 시달리더라도 오히려 차근차근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괴로움을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남은 시간동안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일주일 이상 준비는 기본!

시험 범위가 특히나 많은 기말고사 때는 넉넉히 시험 준비 기간을 정하는 게 좋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시험 공부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돌입해야 기간 내에 공부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책 한 권을 통째로 시험 범위로 내시는 교수님들도 있으니 적당한 분량을 매일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2.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 구분하기

평소에 필기를 잘 해 둔 학생이라면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만한 것인지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과제나 교재의 어떤 부분이 시험과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강의를 듣거나 무작정 공부를 시작한다. 당황하지 말고 평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떠올리며 교재를 살피고 노트를 정리하여 어떤 내용에 집중해야 할지 분석하자.

넌 위한 잔소리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매 수업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시험준비이다. 중요하다고 언급된 내용은 바로 바로 밑줄 쳐 놓고 가급적 강의 시간에 모두 이해하고자 애쓰며 집중하는 자세로 수업을 듣는다면 촌각을 다투는 시험 5분 전에도 정리된 노트만 보더라도 금방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험문제 유형 꿰뚫기

객관식, 단답식, 문제풀이 등 교수님들마다 내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교수가 좋아하는 시험문제 유형을 파악해두면 좋다. 족보라는 것이 괜히 있겠는가? 평소 선배들과의 인맥을 잘 쌓아두면 이런 때 요긴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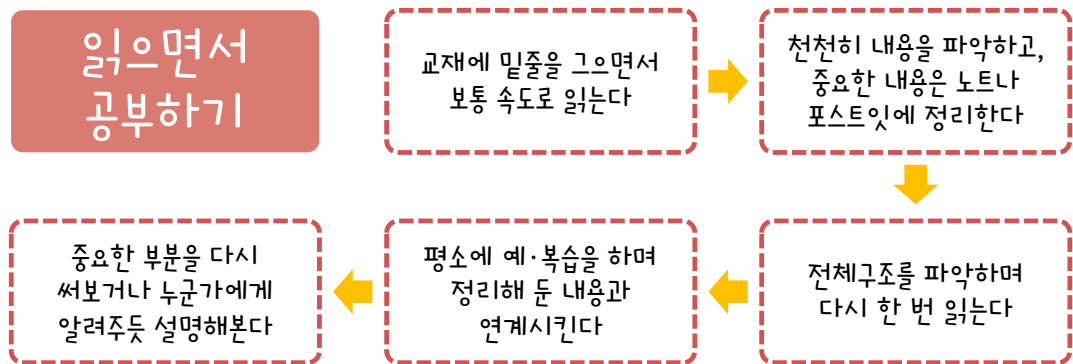
<문제 유형별 답안 작성 요령>

핵심 서술어	작성 방향	작성 요령
- 서술하시오 - 설명하시오 - 논하시오 - 의견을 제시하시오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상세하게 작성한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작성한다. 중요 단어나 핵심 아이디어를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배치하고 간략한 개요를 작성한다. 개요에 따라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한다.
- 정의하시오 - 기술하시오	용어나 개념의 의미를 쓴다.	어떤 주제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언어적 기술을 한다.
- 열거하시오	번호를 붙여 항목이나 단계나 이유를 제시한다.	간략한 단어 및 용어를 중심으로 항목별 혹은 단계별로 이유를 작성한다.
- 비판하시오 - 평가하시오 - 해석하시오 - 분석하시오 - 증명하시오 - 정당화하시오	자신의 판단과 함께 그 증거를 제시하고 분석, 비판, 평가, 해석을 한다.	핵심단어, 요지, 아이디어, 개념들을 첫 문장에 기술하고 처음 단락에는 전체 에세이의 개요를 서술한다. 구체적인 정보, 사례, 인용문을 가지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한다.
- 비교하시오 - 대비시켜 설명하시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여러 사안에 대해 차이점과 공통점을 작성한다.
- 선택하시오	- 답을 찾기 위해 2-3개의 선택답안 가운데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소거법을 이용하여 그 중에서 가장 옳은 답을 선택한다. - 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는 풀이과정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 답이 틀리더라도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면 노력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 대체로 처음 선택한 답이 정답일 확률이 높으므로 고치지 않는 게 좋다. - 아닌, 옳은, 틀린, 거리가 먼, 가장, 항상, 반드시, 모든 등의 수식어구에 따라 문제의 답이 달라지므로 부정어나 강조어의 경우 밑줄로 표시해두는 습관을 갖자.



4. 전략적인 공부 방법 선택하기

먼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쓰면서 공부할 때 잘 외워지는지, 소리내어 읽을 때 이해가 빨리 되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해줄 때 정리가 잘 되는지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 또한 외우는 것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암기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초이다. 그러나 암기만으로 되지 않는 게 대학 시험이다. 개념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암기를 할 때 탄탄하고 구조적인 글을 완성할 수 있다. 특히 고학년이 되어 전공 수업을 들을 때는 기본 개념을 잡는 게 더욱 더 중요해진다.



5. 미리 시험보기(기말고사 치르기)

내가 교수라면 어떤 문제를 낼까?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시험에 나올 법한지 대충 감이 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자신만의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이다. 내가 낸 문제인데 그것도 못할 것 같냐고? 그렇다면 자신 있게 한 번 해보기 바란다. 막상 진지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 책상 앞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진짜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테니까. 모든 무대에는 리허설이 있듯이 당신의 시험도 리허설이 있으면 실전에서 충분히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제 시험을 보는 시간에 맞춰 연습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젊은이, 스트레칭 좀 하면서 공부하시게



어깨 젖히기



양팔을 깎지껴 머리 뒤에 붙인다



팔을 밀어 어깨를 힘껏 젖힌다



다리 들어 올리기



허리를 펴고 의자에 앉는다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긴 후
3초간 정지한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준다



젊은이, 스트레칭 좀 하면서 공부하시게



팔꿈치 당기기



목 뒤로 팔을 들어 겹치고,
팔꿈치를 당긴 채 정지한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한다



어깨와 팔 뒤로 올리기



양손을 등 뒤로 깎지킨다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들어 당겨준다

젊은이, 스트레칭 좀 하면서 공부하시게



어깨와 팔 펴기



목 운동



3. 시험불안, 그게 뭔데?

철저한 준비도 결국 시험 당일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무너져 버리면 허사로 돌아가 버리는 슬픈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 스타, 김연아 선수를 보며 모두가 감탄하는 부분이  바로 큰 경기를 치르면서도 흔들림 없는 멘탈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는 데에는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시 한 번 떨리는 나의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내 마음,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내가 다스려야죠! 



1. 긍정적 다짐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 다짐을 반복하는 것이다. 마음 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자기지시로 대체하려고 노력하자.

Negative thinking

이 과목은 공부하기
어려워. 모르겠어.
시험을 망칠 게 뻔해.

Positive thinking

어려워도 한번
해보지 뭐. 비교하지
말고 나만 보자.

계속 안 된다는 생각이 반복될 때에는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일단 쉬운 문제를 풀면서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상상하고 그려보기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다독이면서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오히려 시간이 남아 남들보다 꼼꼼하게 답안을 살펴보는 자신을 그려볼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하고 기분 좋게 시험장을 나서는 모습도 나에게 힘을 주는 상상일 것이다. 이러한 상상, 시각화는 시험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3. 긴장 풀기

외웠던 것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힘, 긴장감!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면 각성된 상태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게 만들죠. 긴장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 심호흡을 한다

많은 사람이 초조해지면 숨이 가빠진다. 시험 시작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쉴다. 특히 어렵게 보이는 시험문제를 마주할 때 이것을 반복한다.

● 답안 작성 전에 잠깐 동안 문제지를 훑어본다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면 한결 마음이 안정된다. 시험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 긴장감의 실제 원인이다.

● 각 시험문제에 얼마의 시간을 배정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서술형 문제는 예상 답변 시간을 계산한다. 또한 어떤 문제에 몇 분의 시간을 사용할지 주어진 시간을 안배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몸의 긴장을 푸는 동작을 한다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하는 것도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준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몸의 긴장을 풀면 보다 잘 집중할 수 있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시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금시초문

십시일반

금C初聞

十C一飯

C따위는 들어본 적도
없는 장학생을 이르는 말

C 10개 정도야
일반적이다

오비이락

애이불비

五B二落

A不B

다섯 과목 B, 두 과목
과락

정정메일을 보내도 B는
A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시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시종일관 공사다망

C終一貫 供四多亡

일학년 때부터 성적이
한결같이 C다

공들인 사학년 성적 다
망했다

만수무강 금의환향

萬受無講 金衣還鄉



만 번을 수강해도 기억에
남는 강의가 없다

금메달을 따고 당당히
교실을 나가는 모습

4. 그날, 시험 당일

혹시 그대도 어디서 솟구쳐 오르는지도 모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 당일을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충분히 준비하고 후회없이 준비했다면 진짜 시험이 벌어지는 결전의 날에 실력을 발휘해야죠!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조언들을 참고해서 이번 시험에는 근자감이 아닌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 당일을 맞이해 봅시다!



시험당일 새벽 4시
(공부 하나도 안함)



1. 따뜻한 음료로 이완시키기

강의실 난방이 빵빵하지 않다면 긴장한 상태에서 추운 날 시험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따뜻한 차로 몸에 기운이 돌게 만들면 긴장이 이완되면서 안정적인 마음으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마셔서 중간에 화장실 가는 일은 없게 해야겠지?



2. 시험지 주의사항 꼼꼼히 살피기

머릿 속에 든 정보가 날아갈까봐 받자마자 휘갈겨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먼저 시험지를 받으면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감점을 받는다. 연필을 사용해도 되는지, 모든 문제에 답을 해야 하는지, 분량에 제한은 없는지 등 기본 사항들을 살펴보자.



3. 전략적인 시간 안배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까? 첫 번째 문제부터? 쉬운 문제? 아니면 내가 아는 문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그리고 점수 비중이 낮은 쉬운 문제들은 빨리 풀고 넘어가라. 정해진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안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4. 답안의 분량도 중요하다

단답형 문제라고 해서 한두 단어가 끝? That's no no~ 적어도 서너 문장으로 쓰는 편이 낫다. 나는 요점만 '짧게' 쓴 것이지만 교수님께서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증명 문제의 경우 답이 도출되지 못했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적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으며, 혹시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 점수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5. 일단 쓰고 보자? 그건 동문서답!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로 내가 공부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의 글을 읽어야 하는 입장에서 동문서답하는 글, 애매모호하게 아는 척 하는 글,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리는 글은 감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명확하게 상세하게 논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채점하기 쉽게 답안 작성하기

내 답안지를 보는 교수님으로 하여금 답을 찾기 위한 숨바꼭질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령 긴 증명문제를 풀었는데 정작 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채점을 해야 할지 황당하지 않겠는가? 답 부분에 동그라미로 표시해두면 센스있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술형의 글이라면 중간 중간 부제목을 다는 것도 좋다. 이리저리 화살표로 글의 순서를 따라가게 만드는 건 피해야 한다.



7. 시험 마지막 1분까지 붙어 있기

고등학교 때까지는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친구가 대단해 보였다. 벌써 다 풀었다니! 하지만 대학 시험은 다르다. 가장 늦게까지 공을 들여 살펴보고 검토해보고 문제를 푸는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 사소한 노력이 학점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일찍 나가는 친구 부러워 말고 마지막 1분까지 집중 또 집중!

6. 러닝팁을 마치며

인생에서 가장 슬픈 말.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루이스 포. 분

시험이 끝나고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도 위와 같은 말이 있지 않나요? 열심히 할걸, 진작 해 둘걸, 했어야 했는데... 시험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쉽게 포기해버린다거나 후회로 점철 되는 과거를 남기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다가 올 시험을 준비해 봅시다!

학습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학습 전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교수학습센터 02-300-0494 / ctl@kau.ac.kr

참고문헌

김홍자(2009). **테마로 배우는 대학 학습 전략**.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조용개, 손연아, 이석열, 이은화, 이희원, 장상필, 전명남(2009).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학습전략**. 서울: 학지사.

Jacobs, L. F. & Hyman, J. S.(2011). **A+ 대학생활 시크릿**(서우다 역). 서울: KOREA.COM.

Learning Tip 2016. vol. 2

나도 받아보자 A+ : 시험 공부 전략

발 행 2016년 11월

발행처 한국항공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주 소 (105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전화: 02-300-0494

팩스: 02-300-0497

본 내용은 무단 복제를 금함